

<사회복지사, 그들의 진심>

안녕하세요. “사회복지사, 그들의 진심” 지원 안내드립니다.

지원하시는 배역에 해당하는 대사로 연기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* 재현 대사

(재현이 수업에 늦어 택시를 탄 어느 날, 택시 기사님이 학과를 물어봐 사회복지학과라고 답했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"성적 맞춰 갔나보네..."라며 언급해 재현은 어이없는 상황)

“와 !!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! 그날 대답을 못한 내가 너무 싫더라고! 억울했어”

나 진짜 3년 열심히 준비해서 사회복지학과 온거였거든.

기사님은 내가 이 학과 붙었을 때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모를거야.

응 당연히 모르지...!!

진짜... 사회복지학과 편견 때문에 가끔은 힘 빠져...

내가 정말 모두가 안 좋아하는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...

* 우영 대사

(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한지 2년차 사회복지사인 우영은 이 일이 재밌고 좋다고 느끼고 있다.

어느 날 자신이 근무 중인 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놀이터를 갔는데 어떤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한걸 들어버린 상황, 참을 수 없던 우영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 가서 말을 한다.)

선생님!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우리 아이가 뭐 잘 못했나요?

이렇게 처음엔 정중하게 물었지! 근데 참.. 나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알아?

나보고!! 불쌍한 애들 도우미 주제에 왜 끼어드냐는 거야!

“근데 그 말은 유독 너무 아파서 더 싸우지를 못 했어...”

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...”

*** 하나 대사**

(노인 복지, 노인 일자리 관련 사회복지관에서 일한지 4년차가 된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디자인, 행사 기획, 영업 관련한 일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에 이 시대의 커리어우먼이 된 느낌을 받으며 행복감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.)

“아 맞다..!”

요즘은 어르신분들이 너무 젊기도 하고, 액티브 시니어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배울 점도 어마~ 어마해~

근데 최근에 나... 틀딱 뒷바라지...? 라는 말 들었다?

진짜 젊은 친구들이 더 너무 한 것 같아... ㅎㅎ

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!! 우리 더 멋지게 늙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인걸 알아줬음 좋겠어

...